

## 홍현석, 피로골절로 클린스만호 제외…박진섭 대체발탁

등록 2023.11.16 09:52:10



[서울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홍현석이 14일 서울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훈련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2023.11.14. ks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김진엽 기자 =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선수를 교체했다. 부상으로 쓰러진 미드필더 홍현석(헨트)을 대신해 수비수 박진섭(전북현대)을 대체 발탁했다.

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"홍현석이 부상으로 제외됐다. 수비수 박진섭을 대체 발탁했다"며 "박진섭은 지난 15일 밤 대표팀에 합류했다"고 전했다.

협회에 따르면 홍현석은 지난 15일 공식훈련 전 좌측 정강이 부위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, 좌측 경골에 미세한 피로골절이 발견됐다.

협회는 "운동이 가능한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, 피로골절 초진의 경우 초반 관리가 중요하다"는 의무팀의 판단으로 더 큰 부상을 예방하고자 휴식 부여 차원에서 제외를 결정했다"며 "홍현석은 싱가포르전 참관 후 소집해제 예정"이라고 전했다.

이에 홍현석은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(FIFA)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을 관전한 뒤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됐다.

이번 11월 A매치 명단에서 중앙 수비 자원으로는 김민재(바이에른 뮌헨), 김영권, 경승현(이상 울산현대) 3명만 소집했다.

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은 앞서 "월드컵 예선 명단은 23명만 등록할 수 있다. 전방 공격수 3명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해 센터백에서 뺐다"며 로스터 구성 제한 때문에 중앙 수비를 적게 뽑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.



[파주=뉴시스] 고승민 기자 =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박진섭이 25일 경기 파주 NFC에서 훈련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. 2023.07.25. kksmm99@newsis.com

이번 박진섭의 대체발탁으로 중앙 수비진의 로테이션 여유를 갖게 됐다.

한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의 우승에 힘을 보탠 박진섭은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